

문서번호 : 13-10-사무-02
수 신 : 언론사 및 사회단체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(담당 : 이해정 변호사, 이수연 간사)
제 목 : [보도자료]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개최
전송일자 : 2013. 10. 11.(금)
전송매수 : 2매

[보도자료]

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개최

- 일시 : 2013. 10. 16(수) ~ 19(토)

- 장소 :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/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

1.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회장 장주영)은 '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'와 함께 2013. 10. 16(수)부터 19(토)까지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[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]을 개최합니다. 본 행사는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참석자와 시민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,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·문화적 대안 및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소통을 통한 지혜를 도출하고자 하는 담론의 장입니다.
3. 표현의 자유는 의견이나 사상, 주장 등을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로,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.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통한 공적인 정보에의 접근과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에도 지난 몇 년간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질식되고 탄압되었습니다.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.

4. 본 행사의 순서는 16일은 전체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**‘언론의 기능과 정부정책 비판 그리고 문화·예술과 표현의 자유’**를 주제로 지난 언론탄압과 관련한 언론인 (주진우, 이용마 기자), 트윗으로 기소당한 시민(박정근), 문화 예술 분야의 천안함프로젝트 감독(백승우), 전두환 전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를 풍자한 작품으로 논란이 된 이하 작가 등이 출연해 표창원 교수와 현 상황을 진단해 봅니다. 이어서 17일은 **‘신공안정국 - 매카시즘과 표현의 자유’**를, 18일은 **서울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‘화기애애’ <그들이 숨기는 이야기>**, 19일은 **통신 행정심의에 대한 모의심의와 혐오와 차별에 대한 토크쇼**가 이어집니다. (자세한 내용은 별첨 안내문 참조)

5. 민변과 ‘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’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인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하는 시민들의 건전한 의사표현 및 정치참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

■ 첨부 자료

【첨부】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안내문/ 웹자보

2013년 10월 11일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

회장 장주영

